

# 르세라핌, 日 데뷔싱글 오리콘주간 1위...해외女 트와이스 이후 처음

해외 여성아티스트로서 5년 3개월 만의 기록 갱신  
일본 여성 아티스트 포함 니쥬 이후 2년2개월만  
초동 22만 여장...K-팝 걸그룹 日 데뷔 음반 신기록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일본 데뷔 싱글로 오리콘 차트에서 새 역사를 썼다. 1월 31일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르세라핌이 현지 데뷔 싱글 '피어리스(FEARLESS)' 일본어 버전으로 2월6일 자(집계기간 1월 23-29일) 주간 싱글 랭킹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여성 아티스트가 일본 첫 싱글로 해당 차트 1위에 오른 건 2017년 10월30일 '트와이스(TWICE)'의 '원 모어 타임' 이후 무려 5년3개월 만이다. 일본 여성 아티스트를 포함해 여성 아티스트로 따져도 2020년 12월14일 '니쥬(NiziU)'의 '스텝 앤드 어 스텝(Step and a step)' 이후 2년2개월만이다.

또한, 이번 싱글은 같은 날 발표된 29일 자 일간 랭킹에서도 1위를 지켰다. 르세라핌의 데뷔 싱글은 발매 첫 주에 총 22만2000여 장이 판매됐다. 이로써 르세라핌은 역대 K-팝 걸그룹 일본 데뷔 음반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1위를 거머쥐었다. 한일 프로젝트 걸그룹이자 3.5세대 K팝 걸 그룹으로 분류되는 '아이즈원'이 2019년 2월 6일 발매한 일본 데뷔 싱글 '좋아한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好きと言わせた)로 세운 K팝 걸그룹 데뷔 음반 초동 1위 기록(약 22만 장)을 약 4년 만에 갱했다. 특히 르세라핌 멤버 김채원과 사쿠라는 아이즈원 출신이기도 하다.

K-팝 역사상 일본에서 발표한 첫 번째 싱글로 초동 20만 장 이상을 기록한 걸그룹은 르세라핌을 포함해 트와이스, 아이즈원 등 세 팀뿐이다. 트와이스는 '원 모어 타임'으로 초동 기록 20만751장을 기록했었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은 데뷔 싱글부터 쟁쟁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4세대 걸그룹 중 압도적인 성적으로 일본 시장 '원톱'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르세라핌은 오리콘과 인터뷰에서 "주간 싱글 랭킹 1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얻게 돼 기쁘고 감격스럽다. 일본 데뷔가 이제야 실감난다.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퍼포먼스와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어리스'에 대해서는 "과거에 얼마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르세라핌의 힘찬 모습을 담고 있어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르세라핌의 '피어리스'는 현지 최대 레코드숍 타워레코드의 전 점포 싱글 주간 차트(집계기간 1월 23-29일)에서 정상에 올랐다. 또한, 1월 29일 자 일간 판매 차트에서는 '피어리스' B버전과 A버전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 오은영 '신동엽과 케미?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척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며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ENA 예능물 '오은영 게임'은 아이의 발달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영역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는 놀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오은영 박사는 "아이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부모들의 변화도 무척 흥미진진하다"며 "아이와 함께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한 오은영 박사는

ENA 예능물 '오은영 게임' 매주 화요일 방송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의 모든 발달영역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적절히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발달영역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돕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도 크다. 사실 이런 현실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저는 평생을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놀이'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고른 성장발달을 위해선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어떤 교육보다 커다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서너 해 전부터 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육의 두려움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놀이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연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갈 즈음 '오은영 게임' 제작진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만큼이나 육아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힘든 육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자는 것에 뜻을 같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서 언급하는 5가지 유형의 구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은영 박사는 "오은영 게임"에서는 아이의 발달을 신체, 언어, 관계, 정서, 인지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미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으로 단정

짓지 말고 이해하고 부모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를 찾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신동엽, 배우 이민정과의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은영 박사는 "신동엽 씨는 함께 진행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다. 그래서인지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떤 의도인지 알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며 "이민정 씨는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출연한 아이들이 모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우리네 엄마들처럼 육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만날 때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의논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전했다. 특히 '오은영 게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수의 방송에서 '상담' 역할을 주로 해온 오은영이 직접 몸을 쓰는 '놀이'를 소재로 다룬다는 점이다. 오은영 박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언제나 저의 취지는 '인간을 좀 이해해보자' 하 나왔다. 인간의 다양한 면들, 인간의 희로애락 등을 이해해보고자 했다"며 "이번에 하는 '놀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이해하는 데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모두 아이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는 성인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것과 사실을 닮아 있다. 결국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30분 방송.

## 임영웅 콘서트, 다음달 CGV 단독 개봉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개봉 확정



가수 임영웅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오는 3월 관객을 만난다.

씨지비(CGV)는 오는 3월1일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을 단독 개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작품은 지난해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임영웅 콘서트 IM HERO 앨범' 공연과 함께 전국 투어 비하인드 스토리, 미공개 단독 인터뷰 영상 등이 담겼다.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일반 2D 상영관은 물론이고 공연 현장감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상영관인 스크린X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스크린X로 볼 때 극대화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시네마틱 카메라 14대를 활용해 촬영했다. 특별 상영회도 있다. 개봉 첫 주말인 3월4일에는 팬을 비롯한 관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영시봉 상영회'가 진행된다. 이 상영회에선 임영웅 공식 응원봉인 영시봉을 흔들며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시봉 상영회' 진행 극장 및 상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CGV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다음 달 17일부터 CGV 홈페이지와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 美 ABC, NCT 127 '에이요' 호평...“새로운 장르 발명가”

'에이요' 한터차트 일간 1위 차지

그들 '엔시티 127(NCT 127)'의 정규 4집 리패키지 '에이요(Ay-Yo)'가 호평을 받고 있다. 1월 3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국 ABC 뉴스, AP통신 등은 이날 홈페이지에 엔시티 127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리뷰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엔시티 127은 새로운 장르 '네오 칩(neo-chill hop)' 발명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앨범은 엔시티 127만의 장르를 확장해 나가는 3곡이 추가됐으며, 훌륭한 음악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시티 127은 K팝 내에서 실험적인 사운드로 유명하며, 그들은 반전이 있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들의 음악 색깔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지난 1월 30일 발매된 '에이요'는 한터차트 일간 1위를 차지, 타이틀 곡 '에이요'도 공개 직후 벅스, 바이브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일본 라인뮤직 앨범 톱 100 차트 1위를 차지, 타이틀 곡도 일본 로컬



플랫폼 AWA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중국에서도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에이요' 뮤직비디오도 글로벌·한국 음악 부문 모두 1위에 올라 엔시티 127의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편 엔시티 127은 1일 오후 7시 유튜브 엔시티 127 채널과 틱톡 엔시티 채널을 통해 새 앨범 발매 기념 스페셜 방송을 진행했다.

## 트와이스,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수상

그들 '트와이스(TWICE)'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위민 인 뮤직'(2023 Billboard Women In Music) 어워즈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3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YouTube Theater)에서 열리는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즈에서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Breakthrough Artist) 부문을 수상한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빌보드가 한 해 동안 음악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및 경영진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트와이스가 받은 부문은 앞서 이디나 멘젤(Idina Menzel), 토리 켈리(Tori Kelly), 마렌 모리스(Maren Morris), 카밀라 카베요(Camila Cabello) 등이 받았다. 트와이스는 최근 발매한 새 영어 싱글 '문라이트 선라이즈(MOONLIGHT SUNRISE)'로 북미에서 영향력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트와이스가 지난 1월 20일 공개한 '문라이트 선라이즈'는 2월 4일 자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84위로 데뷔했다. 트와이스가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2021년 10월에 발매한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로 해당 차트에 83위로 처음 진입했다. 트와이스는 이번 성적으로 K팝 걸그룹 중 세 번째로 '핫100'에 두 곡 이상 올린 팀이 됐다. 앞서 '블랙핑크' '뉴진스(New Jeans)'가 해당 차트에 두 곡 이상 올렸다. 이들 외에 해당 차트에 1곡 이상 올린 K팝 걸그룹은 '원더걸스' 뿐이다.



보이그룹을 포함 해당 차트에 2곡 이상 진입한 K팝 그룹은 방탄소년단·블랙핑크·뉴진스에 더해 트와이스가 네 번째다. '핫100'에 진입한 K팝 솔로 가수로는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전원, 블랙핑크 로제·리사, 싸이, '2NE1' 출신 씨엘 등이 있다. 또 트와이스는 최근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2021년 11월 12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아티스트 미국 차트에 첫 진입한 트와이스는 1월 23일 기준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누적 차트인 96일을 달성했다. 이는 K팝 걸그룹 중 해당 차트에 최장기간 랭크인한 기록이다. 25일 차트에도 여전히 랭크인하며 이 기록을 총 98일 까지 연장하고 기록을 경신했다.